전국교사불자련 하계수련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10~12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1백여 교사불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불교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현각스님(소찍새마을 원장)의 '불교와 사회복지', 주경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의 '교사불자의 신행생활', 임완숙 회장의 '불교와 환경' 특강이 마련돼 교사불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했다.

부산경찰청 법당개원 1돌법회

부산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고행섭)는 4일 무궁화법당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는 경승 정여(여여선원) 성각 스님(망운암)을 비롯 50여 경찰불자들이 동참했다. 무궁화법당은 지난해 8월 개원 이래 하루 평균 50여 불자들이 참배, 기도하는 등 부산경찰청 불자들의 신행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석불회 마천마애여래입상 친견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10~11일 실상사 새벽예불과 함양 마천마애여래입상(보물 제375호)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50여 동참자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삼라만상이 함께 어울리는 불국토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 벽송사와 서암정사를 찾아 불설아미타경을 독송하며 신심을 다졌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이젠 공부·수행하는 불자로"

직장직능단체들 '내실있는 신행회' 조성 주력

성지순례등 기존행사 변형 참여유도

"함께하는 수행프로그램 개발 시급"

'이젠 공부하고 수행하는 불자가 되자.'

직장직능 단체내에 공부·수행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직장불교 활성화와 내실있는 신행단체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국에 400여 단체가 활동할 정도로 직장직능 단체들의 수는 1999년 이후 급격히 늘었다. 올 한해만 20여 단체가 새롭게 창립, 직장직능 단체 증가 붐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직장직능 단체들은 회원들의 참석율 저조와 낮은 호응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직능 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강한 반면 식상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교육 부재, 재적사찰 활동 등으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장불자들의 법회를 지원하는 지도법사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추대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여법한 신행활동 지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지도법사 추천, 법요집 발간, 임원 교육 등 간접적으로 직장직능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의 신행활동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직장직능 단체들도 각 단체별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의 환경법회, 한전본사 반야회의 야간을 이용한 성지순례, 대전·경북 공무원불자들의 템플스테이 체험 등 기존 프로그램을 변화시켜 직장불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경찰청 불교회, 서울은행 불교행우회, 경산조폐창 금강회 등은 기초교리와 경전을 공부하거나 정기적으로 철야정진 등 수행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직장직능 단체들의 변화 시도는 일부 단체에 머물러 있다.

직장 신행단체 관계자들은 교리학습 체계 수립과 신행프로그램의 다양화, 관심있는 지도법사 임명 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를 바탕으로 사내게시판을 이용한 정기적인 학습, 매주 한차례 이상 교리 또는 경전강독, 수행 및 경전강독 모임 결성, 매주 참회문 또는 발원문 작성 등을 실천함으로써 공부·수행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스스로 공부·수행하고자 하는 직장직능 불자들의 강한 의지는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한다.

경찰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진홍 포교사는 "직장직능 단체들은 일회성 법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는 교육과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직장단체임원 의식집전교육

조계종 포교원, 27일부터 서울 법련사서 4차례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서울·경기지역 직장직능 신행단체 포교부장 등 임원들을 대상으로 의식 집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집전교육은 직장직능 신행단체의 법회 활성화와 안정적인 법회 진행, 법회의식의 통일화 등을 위해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 사간동 법련사에서 열린다. 강사로는 포교원 신도국장 주경스님이 나서, 불교의식에 대한 이해와 목탁치는 법, 예불·정근·각종 법회 집전방법 등을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교육한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의식 집전교육은 직장법회 진행에 큰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조계종 포교원 조양희 신도주임은 "회원만으로 자체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직장직능단체의 원만한 법회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할 계획"이라며 "여법한 법회의식이 될 수 있도록 집전교육에 참가해달라"고 말했다. (02)720-7060

영호남 산악인불자들

화해·화합의 합동산행

영·호남 산악인불자들이 오랜 지역감정의 벽을 넘어 화해와 화합을 다짐하는 합동산행을 가졌다.

광주불교산악회와 부산불교산악회, 영남불교대학산악회는 11일 경남 남해도 망운산을 찾아 합동법회와 등반 행사를 개최했다. 산행에 동참한 200여 산악인 불자들은 화해의 악수, 화합의 포옹을 통해 '이웃임과 동시에 같은 길을 가는 도반'임을 확인했다. 이들은 화방사 참배와 상주해수욕장에서 한마당 잔치를 열기도 했다.

이날 합동산행은 광주불교산악회와 부산불교산악회가 98년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교류를 가져온 데다가 지난해 영남불교대학 산악회가 이에 동참해 성사됐다.

광주불교산악회 박종원 사무국장은 "영·호남 산악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눈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합동산행을 정례화해 영·호남 불자들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대구·부산·광주불교산악회 불자들이 화방사에서 합동법회를 열고 기념촬영한 모습.

불교기초교리서 발간

전남도청·경찰 불자들

전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한 광주 5개 경찰서와 전남도청 불자들이 직장불자를 위한 〈불교 기초교리〉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 일대기, 불자예절 및 상식, 신행방법과 절차, 근본불교 등 160쪽 분량에 다양한 내용이 실렸다. 향림사의 후원과 전남공무원, 경찰불자들의 성금을 모아 초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 책자는 29일부터 매주 목요일 도청회의실에서 혜향스님(향림사)의 강의로 열리는 기초교리 강좌 교재로 활용된다.

어려운 이웃 돌보는 '불자회'로

경남도청불자회 신임 송호룡 회장

"직장생활이 바쁘더라도 주변의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불자회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밀양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홍삼식 前 회장의 바톤을 이어받은 송호룡(55·건설도시국 지적과장·사진) 경남도청불자회장. 불자의 기본적인 도리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데 있다고 강조하는 송 회장은 "매일 만나고 부딪치는 직장동료들에게 환한 웃음을 보시하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큰 마음을 나누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불교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의 회원 가입과 초발심을 낸 회원들의 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9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창립 1돌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800여명에 달하는 도청 직원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인원이기 때문. 도청불자회의 활동이 경남지역 시·군 공무원 불자회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도 회원확대에 나선 한 이유다.

평소 남해도 불교연구에 관심을 가져온 송 회장은 남해도에는 특별히 미륵불과 연관된 성지가 많다고 귀띔한다. 퇴직 후에는 팔만대장경 판각성지로 부각되고 있는 남해도 불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대장경 판각성지 남해도 입증 계획

우리 모임에선

부산시청불자회 적멸보궁 참배

부산시청과 7개구청 불자들은 8월 24~25일 오대산 상원사,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 등 3곳의 적멸보궁을 참배한다. 속박지인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특별정진법회를 열 예정이다. 사하구청 법우회는 13일 오후 7시 당리동 관음사에서 8월법회를 갖는다.

경산조폐창 금강회 해인사서 수련회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윤종우)는 24~25일 해인사 문수암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수련회는 108참회, 1080배, 참선 등 참회와 정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수련회를 회향하는 25일에는 해인사 성보박물관을 둘러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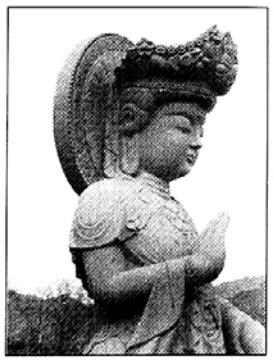
유니텔 불교동호회 수계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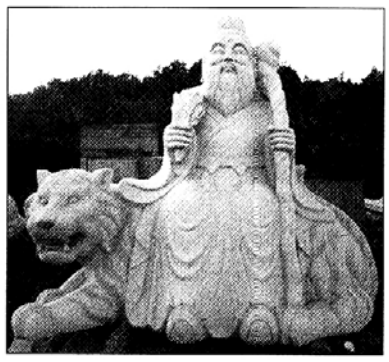
유니텔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는 24~25일 경북 봉화 축서사에서 수계법회를 갖는다. 축서사 주지 무여스님이 계사로 나서는 이번 수계법회에는 회원 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참석할 수 있다. s1bud1@unitel.co.kr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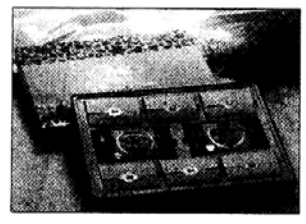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매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